

구절초와 단풍에 반하다…정읍, 체류형 관광도시로 도약

내장산·구절초정원 방문객 급증…1년 새 30만명 이상 늘어
계절형 콘텐츠 전략 적중…관광객 증가로 지역 활력 회복

정읍을 찾은 방문객이 1년 전 보다 30만명 이상 증가하며 지역 관광에 활기다 돌고 있다.

정읍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관내 주요 관광지 20개소의 총방문객 수는 약 190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164만여명 대비 32만명 가량 늘어난 수치다.

관광객 증가 견인 핵심 지점은 내장산국립공원과 구절초지방정원으로 나타났다. 내장산국립공원은 2024년 대비 약 15만명 이상 증가하며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구절초지방정원 역시 13만명 이상 늘어난 46만 1900여명의 방문객을 기록하며 정읍 대표 계절·체류형 관광지로 자리매김했다.

이같은 성과는 주요 관광지에 대한 안정적 운영과 계절별 맞춤형 콘텐츠 제공, 방문객 관리 체계 개선 등이 복합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시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 지침에서 한때 제외됐던 구절초지방정원이 재등록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문체부로부터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지난해 7월 무인 계측기를 사용하는 애와 관광지점들에 대해 승인 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정읍에서는 내장산국립공원과 구절초지방정원의 지점 승인이 취소됐다.

시는 즉각 이의를 제기했고 이후 구절초지방정원이 사전 예약제와 전산시스템을 결합한 과학적 방문객 집계 체계를 구축한 점이 인정돼 재등록에 성공했다. 이번 조치로 관광 통계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내장산국립공원에 대해서도 한국문화관광연 구원과 국립공원공단 간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한국관광공사 관광데이터랩의 이동통신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정읍시를 찾은 전체 방문객 수는 2024년 대비 53만 3622명 증가한 1177만 3070명을 기록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이번 방문객 증가는 정읍 관광자원의 매력과 함께 통계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온 행정적 노력이 어우러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체류형 관광도시로의 전환을 차근차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복취재본부장 parkks@



정읍을 찾은 방문객이 1년 전 보다 30만명 이상 증가했다. 정읍 구절초지방정원 전경. <정읍시 제공>

초고령사회 대비…남원시, 노후생활 지원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

분야별 5개 수행기관과 협약
방문재활운동 등 지속 제공

남원시가 지역 노인층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자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남원시는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통합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 28일 분야별 수행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돌봄이 필요한 기구를 대상으로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방문재활운동 ▲식사 지원 ▲병원동행 ▲주거환경개선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4대 핵심 분야의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참여한 5개 수행기관은 대한물리치료사 협회 전북도회, 남원시니어클럽, 사회적협동조합 섬세한, 살립노인복지센터, 보은건설 등이다.

이들은 각각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방문재활



지난 28일 남원시청에서 열린 '민관협력 구축을 위한 남원시&통합돌봄 제공기관 업무협약식'에서 최경식(왼쪽 세번째) 시장을 비롯해 통합돌봄 수행기관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남원시 제공>

운동 ▲식사지원 ▲병원동행 ▲주거환경개선 등 업무를 수행한다. 시는 이를 통해 초고령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더 가까이에서 돌봄을 실천하고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함께 피어나는 남원형 통합돌봄 모델을 완성해 나갈 방

침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자신이 살던 곳에서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최대 64% 할인…정읍 '단풍미인쇼핑몰' 설명절 기획전

18일까지 무료배송 서비스도

정읍시가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농특산물 쇼핑몰인 '단풍미인쇼핑몰'을 통한 최대 64% 할인 기획전을 마련했다.

정읍시는 설을 맞아 전국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품질의 특산물을 제공하고자 2일부터 18일까지 '2026 설명절 기획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획전에서는 지역 대표 특산물인 쌈화차와 지황옥고를 비롯해 한우, 한과 등 150여개 상품을 만날 수 있다.

가격 할인 외에도 신규 가입회원에게는 현금처

119대원 폭행피해 막는다 남원소방서, 전담팀 운영

럼 사용할 수 있는 5000포인트를 즉시 지급한다.

또 5만원 이상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10% 장바구니 할인쿠폰 2매도 제공한다. 가격과 수량에 관계없이 전 품목 무료배송 서비스도 지원한다.

정읍시 직영 단풍미인쇼핑몰은 PC와 모바일 환경 어디서든 간편하게 주문과 결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치솟는 물가로 고민하는 소비자들이 부담 없이 정읍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자 기획전을 마련했다"며 "돕기 위해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전담팀은 피해 발생 시엔 행정지원과 긴급 심리 지원 등 피해 대원 회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모로모로열차' 타고 고인돌유적지 한바퀴~

고창군, 탐방열차 운영

고창군이 세계유산 고인돌유적지 관람객의 편의를 위한 탐방열차 신규 '모로모로열차(사진)'를 선보인다.

지난 30일 고창 세계유산 고인돌박물관 일원에서는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함께한 가운데 새 모로모로열차의 시승식이 열렸다.

'모로모로열차'는 리뉴얼된 모로모로 캐릭터인 '고창이와 친구들'로 디자인됐다.

관람객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냉·난방기와 안전밸브 등이 추가됐고 열차 상징성을 강화하는 기적소리와 연무 등이 추가됐다.

지난 2000년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고창 고인돌 유적지에는 탁자식, 바둑판식, 개석식 등 다양한 형태의 고인돌이 공존하고 있다.

선사시대 고인돌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규명하고 세계 거석문화 이해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유적으로 자리매김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 대표 관광지인 고인돌 유적지에 새로운 '모로모로열차'가 활력을 불어넣길 바란다"라며 "관광객과 지역주민, 아이들에게 세계유산이 지닌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전승과 유산 투어리즘으로서 관광 모델을 선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고창군 '구름골 산림휴양테마파크' 조성 속도

산림청과 토지 문제 해결…연내 준공 목표

고창군이 산림휴양과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 조성을 속도를 낸다.

고창군은 '구름골 산림휴양테마파크'를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건설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휴양테마파크는 전북 고창군 아산면 용계리 일원 56ha 부지에 조성되는 자연휴양림·산림 레포츠 시설이다.

사업은 당초 지난해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테마파크 부지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림청 소유 토지와 군 소유 토지를 맞교환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지연됐다.

하지만 지난해 말 토지 문제가 해결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테마파크에는 숙박시설과 숲속 야영장, 산책로 등 휴양시설을 비롯해 로프·레일을 활용한 산림레포츠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목공 체험과 전시 기능을 갖춘 목재문화체험장도 조성해 복합 산림 문화공간으로 꾸며진다.

군은 테마파크가 완공되면 운곡람사르습지와 선운산도립공원 등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 지구가 형성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한국의 갯벌」은 세계자연유산

• 유산 명 :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s)
• 등재기준 : (x) 생물다양성 및 멸종위기종의 서식지
• 등재년도 : 2021년
• 유산면적

명칭	합계 (㎢)	유산지역 (㎢)	완충구역 (㎢)
총면적(㎢)	2,030.03	1,284.11	745.92
서천 갯벌	104.66	68.09	36.57
고창 갯벌	74.11	55.31	18.80
신안 갯벌	1,773.40	1,100.86	672.54
보성-순천 갯벌	77.86	59.85	18.01

※ 유산지역 면적은 서울시(605.24㎢)의 약 2배, 전체 연안습지보호지역(1,497.24㎢)의 약 86%, 국가연안습지(2,482.00㎢)의 약 52%를 차지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자구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있는 서식지 중의 하나이며, 특히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가치가 크므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로부터 인정

• 다양한 형태의 아름다운 갯벌 경관

펄갯벌 위에 새겨진 기하학적 모양의 조수로

새들의 휴식처인 사래와 암반서식처

갯벌 위에 출수하는 무희, 사워

암반서식지 위에서 휴식하는 흉도

전 세계에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특이직체

모래-자갈 선태체, 세상에 일리지 않은 이하마을

계절별로 다른 형상을 보여주는 흰색 갯벌 속의 모래갯벌

모래-자갈 선태체, 세상에 일리지 않은 이하마을

계절별로 다른 형상을 보여주는 흰색 갯벌 속의 모래갯벌

모래-자갈 선태체, 세상에 일리지 않은 이하마을

계절별로 다른 형상을 보여주는 흰색 갯벌 속의 모래갯벌

모래-자갈 선태체, 세상에 일리지 않은 이하마을

계절별로 다른 형상을 보여주는 흰색 갯벌 속의 모래갯벌

모래-자갈 선태체, 세상에 일리지 않은 이하마을

계절별로 다른 형상을 보여주는 흰색 갯벌 속의 모래갯벌

모래-자갈 선태체, 세상에 일리지 않은 이하마을

계절별로 다른 형상을 보여주는 흰색 갯벌 속의 모래갯벌

모래-자갈 선태체, 세상에 일리지 않은 이하마을

계절별로 다른 형상을 보여주는 흰색 갯벌 속의 모래갯벌

모래-자갈 선태체, 세상에 일리지 않은 이하마을

계절별로 다른 형상을 보여주는 흰색 갯벌 속의 모래갯벌

모래-자갈 선태체, 세상에 일리지 않은 이하마을

계절별로 다른 형상을 보여주는 흰색 갯벌 속의 모래갯벌

모래-자갈 선태체, 세상에 일리지 않은 이하마을

계절별로 다른 형상을 보여주는 흰색 갯벌 속의 모래갯벌

모래-자갈 선태체, 세상에 일리지 않은 이하마을

계절별로 다른 형상을 보여주는 흰색 갯벌 속의 모래갯벌

모래-자갈 선태체, 세상에 일리지 않은 이하마을

계절별로 다른 형상을 보여주는 흰색 갯벌 속의 모래갯벌